

영어교육 33호  
1987년 2월

## 영어교육에서의 정확성의 오류

이 영 식  
(서강대학교)

### I. 서 론

흔히 영어교육의 목표를 세울 때 정확한 발음 또는 정확한 문장의 생성 등을 나열하곤 한다. 그리고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만을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표로 알고 있으며, 교과과정도 정확한 영어에만 의존하고 있다. 영어교육이 정확성에 근거를 둔다함은 학습자가 영어를 생성할 때 사소한 실수없이 완전한(flawless)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일정한 기간동안 영어교육을 받고난 후 완전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영어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영어교육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영어학습의 실제와 거리가 먼 것이며, 방법론적인 면에서 볼 때 영어교육의 허상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종래 우리의 영어교육이 범한 착각중의 하나는 영어에 대한 지식—특히 문법지식—이 결코 영어를 실제 의사전달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된다고 단순히 생각해온 것이었는데, 이것은 정확성에 바탕을 둔 영어교육방법의 오류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영어의 사용은 그러한 지식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간단한 예를 들어 보건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 또는 es 를 붙여 어미변화시킨다는 것(언어지식)을 알면서도 실제상황에서는 'He go to school' 이라고 발화(언어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외국어인 영어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실수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언어는 의사전달 수단이므로 그 언어로 자기의사를 전달하는 한 사소한 실수는 그리 큰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역설

적으로 말하여 외국어를 표현하려는 노력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할수록 학습자가 그 언어를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으며 언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성에 의거한 영어교육이 얼마나 환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정확성에 바탕을 둔 영어교육의 그러한 모순을 이론및 경험에 의거 밝혀보고자 한다.

## II. 영어교육의 정확성으로 인한 오류

### 1. 영어의 전반적인 면보다는 부분적인 면에 치우침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영어에 대한 지식(어휘·문법·구조등)에 대한 지식(knowledge)을—소유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어의 기능(skill)을 습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어로 표현할 때 정확히 생성할 수 있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칫 지식 측면의 영어만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한 영어교육은 결국 세부적인 면에까지 파고 들어가 때로는 불필요하게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채 남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부분적인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으면서, 전체적인 것을 놓치거나 또는 전반적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문법교육에 대한 방법론으로 이어진다. 전통적인 방법은 영어교육을 시작할 때 우선 기본적으로 문법을 완전히 정복(master)한 후 불완전한 표현이나 문장생성의 오류(error)는 초기 단계부터 근절하자(eradicate)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방법은 이상에만 치우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문법은 결코 정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요즘의 영어문법 교육에서는 'master'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관사(definite article) 및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의 용법을 이해하고 정확히 쓸 줄 아는데에도 수십년이 걸린다는데, 그러한 것이 더구나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완전하게 습득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문법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문화원(The British Council)의 지원을 받아 인도남부지방 Bangalore에서 1979년 부터 1982년까지 행

해진 영어교육 **Bangalore Project** 가 많은 것을 시사해 주리라고 생각된다. 이 프로젝트의 문법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언어 학습자의 문법형성이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가듯이 첨가적(additive)이라기 보다는 상호연관지어 가면서 발달되어 가는 유기적(organic)이라는 것이며, 학습자에게 강요되는 문법의 일반화는 학습자에게 득(benefit)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해(harm)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angalore Project**의 책임자였던 **Dr. Prabhu**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umfit 1984 : 102)

The basic assumption of the project is that 'form is best learnt when the learner's attention is on meaning'... This follows from the beliefs that the process of grammar construction by the learner is likely to be a development process which is 'organic' rather than 'additive'.... consequently any conscious formulation of generalisations is likely to be harmful rather than beneficial as it will distort the learner's own generalisation by imposing inappropriate categories.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결국 문법위주의 외국어교육에 비판을 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문법을 바탕으로 한 강요된 정확성 위주의 영어교육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확성 위주의 방법론은 결국 제한된 부분에만 치우치게 되어 이해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내용의 전반적인 의미, 유기적인 관계(coherence)에는 무관심할 우려가 있다. 간단히 말하여 부분은 충실하지만 전체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Morrow** (1981)는 **communication**을 위한 언어교육 방법론의 5원칙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he whole is more than the sum of the parts."

## 2. 표현력 억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적인 문법에 바탕을 둔 영어교육은 정확성위주의 영어교육 방법론으로 유도되고, 영어의 부분성에 치우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영어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세심하게 분석된 영어문장 요소를 신중하게 생성하는 것 보다는 구어적인 표현을 불완전하면서도 유창하게 구사해 보도록 시도하며, 이것은 결국 유창성(fluency)을 위주로 하여 영어에 몰입해보는 여건을 조성하여 자연스런 학습과정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성 위주의 영어교육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표현해 보려는 시도를 좌절시키는 억제효과를 지녀서 학습자 위주의 교수방법 (learner-centered approach)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은 즉흥적으로 표현 (improvise)할 수 있는 적응성이나 능력을 소홀히 하여 결국 그 자체로서 결합을 지니고 있는 비탄력적인 교육과정이 되고 만다. Brumfit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Brumfit & Johnson 1979 : 187-8)

To insist on a model of accuracy, whether conceived in grammatical or functional terms, entails taking a number of risks: that inflexibility will be trained through too close a reference to a descriptive model, that adaptability and the ability to improvise will be neglected, that written forms will tend to dominate spoken forms, and so on.

너무나 정확성의 모델에만 집착하면 학습자는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표현하려는 의지가 꺾여서 야기되는 학습자의 심리적 상태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어로 전달하려는 의사를 모두 정확히 표현하려는 나머지 자신의 영어가 불완전하게 생성될 때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영어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포기하여 결국 영어를 표현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영어는 우리에게 모국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영어, 틀리는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영어를 필요로 하여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데 완전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결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요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설사 불완전하고 틀리는 영어가 생성되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영어교육이 정확성에 집착한 나머지 영어에 대한 실수를 자주 교정함으로써 표현하려는 자발성 및 의지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교실수업에서의 형식적인 언어교수(formal instruction)가 정말로 학습자의 언어습득을 도와주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Ellis, 1985 : 215-47). 언어는 정적(static)인 것이 아니라 동적(dynamic)인 것이며, 우리는 언어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단적으로 말하여 정확성에만 너무 집착한다면 학습자의 표현력을 좌절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것은 언어습득이론의 Monitor 사용과 관련이 있다.

### 3. Monitor 과다 사용

정확성에 의거한 영어교육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볼 때 우리는 언어교육에서 언어학습(language learning)과 언어습득(language acquisition)을 구분한 Krashen의 주장을 살펴 보아야 한다. Krashen(1982)에 의하면 acquisition이 외국어 또는 제 2언어(second language)의 발화를 유도하여 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진작시켜 주지만, 반면에 learning은 단지 한기능만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의식적인 언어과정으로서 Monitor 기능이라는 것이다.

Monitor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he monitor is the part of the learner's internal system that appears to be responsible for conscious linguistic processing. (Burt, Dulay & Krashen 1982 : 58)

즉 Monitor란 들어오는 언어를 편집 및 추출을 담당하는 학습자의 내재적 기능을 의미하며, 언어학습자가 의식적으로 문장을 생성·정정 및 편집하는데 이 Monitor를 통한 언어지식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Monitor이론이 의미하는 것은 학습자가 생성하는 언어(input)를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의식적인 언어규칙과 지식에 계속하여 비교 및 정정한다면 Monitor과다 사용자(Monitor over-users)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Monitor과다 사용은 결국 언어사용자로 하여금 능통하게 발화하지 못하고 주춤하게 되며 말하는 도중 자주 언어를 스스로 고쳐가는 습성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Monitor이론이 의미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언어규칙의 지식이 언어학습자가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으며, 너무나 정확성에만 치우치게 되면 Monitor를 너무 사용하게 되어 학습자의 유창한 언어의 구사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이러한 Monitor이론은 언어학습자의 심리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 준다.

### 4.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유발 저하

앞에서 영어교육이 정확성만 기하려다 보면 문법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Monitor과다사용자를 길러내게 된다고 하였다. 문법의 과다사용 즉 Monitor과다사용의 원인을 두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는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L2)에 대한 접근 및 학습방법이며, 둘째로는 개인성적이라고 하면서 Krashen(1982 : 19)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re may be two different causes for over-use of grammar. Over-use may first of all derive from the performer's history of exposure to the second language. Many people, victims of grammar-only type instruction, have simply not had the chance to acquire much of the second language, and may have no choice but to be dependent on learning. Another type may be related to personality. These over-users have had a chance to acquire, and may actually have acquired a great deal of the second language. They simply do not trust this acquired competence and only feel secure when they refer to their Monitor "just to be sure."

Morrow(1981 : 64)도 의사전달 영어교육 방법론의 다섯가지 원칙중의 하나로서 'Mistakes are not always a mistake'라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학습자가 그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 문법이나 발음의 사소한 실수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러한 실수를 통하여 언어학습자가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제 의사전달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른다는 것이다.

Monitor 이론과 관련하여 Krashen 이 설정한 *The Affective Filter* 이론은 정의적인 요소(affective factors)가 어떻게 언어습득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었다. 이 이론은 세가지의 정의적 범주로 구별되는데 Krashen(1982 : 3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Motivation*. Performers with high motivation generally do bette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usually, but not always, "integrative")
- (2) *Self-confidence*. Performers with self-confidence and a good self-image tend to do bette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3) *Anxiety*. Low anxiety appears to be conducive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whether measured as personal or classroom anxiety.

그러므로 높은동기, 자신감, 그리고 낮은 불안등이 효과적인 언어습득을 유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성에 의거 학습자가 생성하는 언어에 실수가 있다고 하여 자주 교정하여 주는 식의 교수방법은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저해하고 자신감을 꺾을 수 있으며 실수하는 데에 대한 불

안으로 인하여 표현력이 억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효과적인 교수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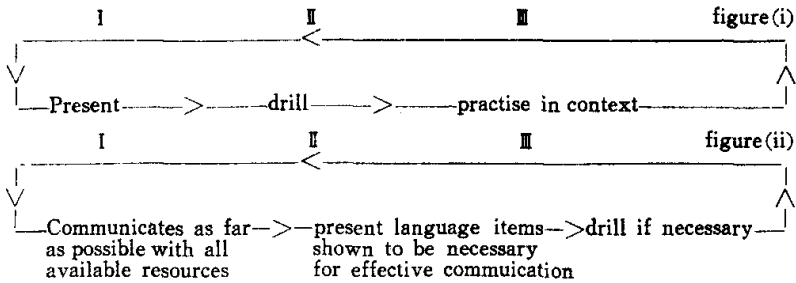
### 5. Communication 과 관련없는 언어교육

항상 영어문장의 정확한 생성만을 강조하다보면 학습자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을 초래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communication 을 위한 영어교육과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확성 위주의 영어교육과정의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원래 정확성이란 용어가 기술언어학(descriptive linguistics)에 의해 언어학적으로 제시된 모델이고, 대부분이 문헌에 근거를 두고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정확성만 고집하게 되면 우선 기술언어학에 바탕을 둔 경직성(inflexibility)이 나타나고, 예측할 수 없는 언어상황에 적용하고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시되고, 문어적인 형식(written form)이 지배적이며, 언어의 일부분에 관심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Harmer(1983 : 44-5)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us for non-communicative activities there will be no desire to communicate on the part of the students and they will have no communicative purpose. In other words, where students are involved in a drill or in repetition, they will be motivated not by a desire to reach a communicative objective, but by the need to reach the objective of accuracy. The emphasis is on the form of the language, not its content. Often only one language item will be the focus of attention and the teacher will often intervene to correct mistakes, nominate students, and generally ensure accuracy. And of course the materials will be specially designed to focus on a restricted amount of language.

Brumfit 는 초기단계부터 의사소통활동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각언어요소를 단계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Brumfit & Johnson 1979 : 183)

그리하여 그는 언어교육 방법론으로서 항상 선택된 언어자료를 제시하고 연습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즉 정확성에 근거한 연습(drill)위주의 재래식 교수방법 figure(i)보다는 전통적 교수방법의 전환(a reversal of traditional methodological emphases)이라는 figure(ii)를 제시하여 의사전달활동을 가능한 한 많이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영어교육의 성장모형(growth model)과 언어모형(linguistic model)중에서 정확



성에 근거한 언어모형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Brumfit & Johnson 1979 : 185)

The growth model, at its best, recognizes both the complexity of linguistic operations and the close relations between language, personal needs and social situations. A linguistic model is always external to the student, but growth takes place inside him. Too much foreign language emphasis on linguistic model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whether conceived in formal or functional terms, will lead to a neglect of process which will be pedagogically disastrous.

즉 외적인 언어형식의 강조는 학습자의 내적인 성장과정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순(1986 : 93) 교수는 이러한 Brumfit와 Johnson의 영어교육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Brumfit와 Johnson은 유창성(fluecny)과 정확성(accuracy)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즉 유창성에서는 모국어 습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처럼의 사전달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내용을 살피고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는 의사소통(communication)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Johnson은 자연스럽게 상호 의사교환이 계속되면 말의 구성이나 이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유창성은 실제 상황에 맞게 활동시킴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communication’의 목적은 정보전달에 있기 때문에 서로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는 ‘information gap’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하튼 정확성에 집착한 영어교수방법은 예측할 수 없는 실제상황에서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 될 수 있는 결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언어교육이 정확정보다는 유창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어교육이 정확한 영어사용을 반대하거나 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영어학습의 초기단계부터 정확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폐해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은 Krashen의 *The Input Hypothesis*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우선 학습자에게 가능한 한 충분한 언어입력(i)를 주어서 자연스럽게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언어(i+1)를 습득하게 하고, 그렇게 충분히 습득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때에 정확성을 기하면서 그 언어를 세련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drill을 강조하는 전통적 교수방식으로부터 전환(reversal)하여 그러한 학습을 communication 후기 단계(post-communicative level)에서 도입하는 Brumfit의 방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요약하건대 언어교육의 목표는 정확성이라기 보다는 그 언어를 표현할 때 사소한 실수를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communication에서 유창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communicative ease)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Ⅲ. 정확성에 바탕을 둔 영어교육의 사례

지금까지 필자는 정확성에만 의거한 영어교육의 모델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것의 악영향을 이론적으로 나열해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필자는 영어교육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우리 영어교육이 지니고 있는 정확성에 대한 사례를 지적하여 보고자 한다.

#### 1. 영어 듣기 교육의 예

흔히 듣기(listening)를 화자(speaker)가 발화하면서 언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코드화(encode)시킨 메시지를 청자(hearer)가 해독(decode)하는 과정 즉 encoding-decoding process라고 일컬어지곤 했다. 그러나 이것은 듣기과정을 너무나 단순화 시킨 것이라는 반박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국어의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단어를 해독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전부기억하면서 우리가 100% 다 듣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서 그에 따른 상황(context)에 의거 전달되는 메시지를 추측해 보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화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의 부분만

을 가지고서도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또한 화자가 설사 불완전하게 전달하였더라도 청자의 추측력과 주어진 상황에 의거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에서의 듣기를 단순히 수동적(passive), 수용적(receptive)인 기능(skill) 뿐만 아니라 창조적(creative)인 기능이라 말하기도 한다(Rivers 1981 : 160)

이것은 다시 정확성과 유창성의 구별과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여 영어 듣기 지도에서 우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내용의 100%를 정확히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듣기교육에서 정확성에만 집착하여 부분적인 메시지 내용의 100% 정확한 이해만을 강조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게 하고 모든 단어 및 문장에 정보 과정을 압도할 우려가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간에 한 단어 또는 문장의 일부분만을 놓치게 되면 도중에서 청취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전체 의미를 놓치게 된다. 더군다나 들려오는 메시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려다 보면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연스런 언어청취력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정확성에 근거한 사례로서 학습초기단계에서 너무 지나친 *minimal pair drill* 을 들 수 있다. 다음 두 문장의 예를 들어 볼 때

- (1) The boy beat the dog.
- (2) The boy bit the dog.

설사 *speaker* 가 (2) 문장을 발화하였더라도 주어진 상황(context)에 따라 (1)처럼 들릴 수 있다. 다시 말하여 *beat/bit*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이 결코 *communication* 에서 청취 이해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와 관련이 없는—즉 *communication* 과 관련이 없는—*drill* 위주의 듣기훈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받아쓰기(dictation)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받아쓰기가 듣기지도의 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듣기평가 방법으로 받아쓰기만을 강요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부분적 정확성에 관여하여 들어오는 메시지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볼 때 빠르고 자연스런 언어청취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Brown 과 Yule(1983 : 57)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aim of a listening comprehension exercise should be for the student to

arrive successfully at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not process every word, and not to try to work out all that is involved in the literal meaning of the utterance, since that is, in principle, an impossible task.

그러므로 듣는 과정중 한개의 단어 또는 문장을 설사 놓치더라도 주어진 상황과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의 여건에 비추어서 추측하면서 전체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즉 발화된 내용의 모든 단어나 문장위주의 완전한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듣기교육의 목표는 유창성에 근거를 두면서 들려오는 메시지의 타당한 해석(reasonable interpretation)이어야 한다.

## 2. 영문 독해 수업(reading class)에서의 예.

현재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영어로써 실시되고 있는 영어교육은 독해력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대학 영어교육의 '교양'이라는 의미가 너무 막연하다는 지적이 많이 되어왔지만, 그보다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영문독해과정에 임하는 방법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모든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는 관념에 빠져 문법 및 문장구조에 바탕을 두고 모든 단어와 문장을 번역·분석하는 식의 교수방법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본래 번역이란 학습자에게 배우고자 하는 언어의 문장에 대한 형식적 특성(formal properties of the target language sentences)에다 관심을 두게 하고 전반적인 문맥상의 의미(contextual meaning)를 찾아 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으로 독해과정이 진행되다보면 결국 문장(sentence)이 교수단위(teaching unit)로 되고, 개별적인 문장의 뜻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주어진 본문 전체를 읽고 난 후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이것은 독해과정에 임하는 방법이 정확성에 바탕을 두고 세밀한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 속도를 무시한 정확한 번역 및 이해 위주의 수업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적어도 독해수업에 관한 한 많은 양의 영문자료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읽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유창성의 교수방식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문장위주의 독해수업으로 부터 여러문장이 배합되어 일관성(coherence) 있는 의미를 전달해주는 담화(discourse) 위주의 독해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한편으로는 주어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의미파악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속도로 읽는 기능(reading skills)을 개발하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유창성)도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3. 말하기 지도의 예

전통적인 영어교수방법은—특히 audio-lingual approach 는— 연습(drill) 위주로 학습자의 언어적 발달(linguistic development)을 도모하는 정확성의 모델이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구어체 영어(spoken English)에 대한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학습자가 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지나치게 교정함으로써 오히려 그 학습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즉 언어의 다양한 형식과 문법적 특성을 분석 및 식별하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학습시키는 것도 가능한 지도 방법이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문장요소를 고립시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의사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의사전달상황에서는 화자가 발화하는 실체언어 형식의 잘못된 보다는 전달되는 메시지의 의미에 청자는 관심을 기울이게 됨을 학생들에게 주시시켜 실수가 두려워서 표현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Allwright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self-confidence in such learners is perhaps crucial to their further *linguistic* development. While it is undoubtedly true that some learners will respond well to strictly 'language' courses in circumstances where they also have pressing communication needs, it seems intuitively reasonable to suggest that the strain on most learners will be considerable, if they are faced with the twin problems of developing linguistic accuracy and achieving communicative self-confidence, but only receiving help with the first of the two. It would seem more helpful to concentrate on developing their communicative ease first, to facilitate their integration into academic and social life and thus to clear the way for a subsequent development of such linguistic accuracy as they may desire, free from any additional problem of communicative insecurity. (Brumfit & Johnson 1979 : 178-9)

그러므로 유창성에 바탕을 둔 영어교육은 우선 drill 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언어적 발달 뿐만 아니라 언어외적(extra-linguistic)

인 면까지 고려한 **communication** 을 위한 교수법으로 유도한다. 물론 정확성에 관여하지 않고 유창성에만 중점을 두는 **speaking** 지도는 교실수업에서 **pidgin English** 를 사용하는 우려가 있지만 효과적인 말하기 지도방법은 우선 학습자의 의사전달에 대한 자신감을 일깨워주고, 그것이 결국 언어적인 발달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Morrow** 가 제시한 원칙 "**Mistakes are not always a mistak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4. 작문지도의 예

영작문 지도가 어느 기능보다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기능이고 문법구조 및 문형에 의거 어느정도 수준의 기본적인 형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영어 작문교육이 영어가 모국어(L1)로써 또는 외국어(L2)로써 실시되든간에 학생들의 작문 오류(error)는 잘 용납이 되지 못하고 또한 의식적인 교정이 자주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영작문지도를 유창성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할 때, 다른 기능의 지도—듣기, 읽기, 말하기—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Harmer**(1983 : 48)는 **writing**에서의 정확성을 강조하면서 **speaking**과 **writing**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Perhaps the single most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writing and speaking, however, concerns the need for accuracy. Native speakers constantly make 'mistakes' when they are speaking. They hesitate and say the same thing in different ways and they often change the subject of what they are saying in mid-sentence. Except in extremely formal situations this is considered normal and acceptable behaviour. A piece of writing, however, with mistakes and half-finished sentences, etc. would be judged by many native speakers as illiterate since it is expected that writing should be 'correct'. From the point of view of language teaching, therefore, there is often far greater pressure for written accuracy than there is for accuracy in speaking.

이것은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며,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communication**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도 영어로 글을 쓰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교실수업을 통한 영작문지도가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요한다는 것을 말한다. **Brumfit**(1984 : 86)는 정확성과 유창성이라는 작문교육의 양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one part of the course consisting of a highly rigid series of controlled and guided writing exercises, and another encouraging totally free writing which would be discussed only in terms of its ideas and content, with no reference to formal errors except where they impeded communication.

그러나 다른 기능보다 정확성을 요구하는 작문지도에 있어서도 유창성에 바탕을 두는 지도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정확성에 의한 지도는 문장단계에만 그치므로 문장단계를 넘어선 문단(paragraph) 또는 text 위주의 작문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학습자가 언어의 기본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일정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문장의 오류에 관계없이 계속 적어가도록 하는 지도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단 아이디어를 형성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 생각을 계속 적어가되 멈추지 않고 또한 앞에 쓴 글이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하여 글을 쓰는 도중에 다시 되돌아가 고치지 않도록 하는 지도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다(Keep going forward; Don't stop; Don't go back to change anything).

이것은 종래의 문법구조에 의지한 문장위주의 작문 또는 번역식 작문으로부터 아이디어를 형성하면서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배합된 문장의 사용이라는 담화(discourse)로 넘어가는 작문으로 관점을 바꾸어서 결국 자유작문(free writing)으로 이끌어 감을 의미한다.

#### Ⅳ. 영어교육이 정확성에 빠지는 이유

지금까지 언어교육의 두가지 대립되는 모델인 정확성과 유창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이 왜 정확성의 모델에만 집착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로 영어교육의 모델을 정확성에만 근거함으로써 가르치기 쉽고,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과정을 단순화시켜 지도할 수 있고 또한 평가하기 쉽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특히 구어체보다는 문어체 언어에 의존함으로써 문법위주의 교수방식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덜 힘든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언어를 내용보다는 형식위주로 생각하여 가르치다 보니 문법적인 실수를 자주 교정해주고 문장위주의 번역이 불가피해지는 양상이 되고

만다. 번역을 하지 않고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을 도모하고 문장위주가 아닌 의미 위주로 하는 의사전달방식의 교실수업이란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막연하고 확실한 방향이 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창성에 입각하면서 궁극적으로 **communication** 을 보장할 수 있는 수업이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교수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성이란 논리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특히 평가(testing)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나타난다.

정확성에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험의 부족에서 나오는데 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경험이라고 말할 때에는 두가지 종류의 경험을 말하는데, 자신이 **communication** 상태에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언어를 배워왔던 경험과 수업에 들어가서 의사전달을 위한 영어를 지도했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험은 영어 학습자로서 영어의 학습 및 습득을 말하는데 실제 **communication** 상황에서 언어사용이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결국 그 의도를 수정해 버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S.P. Corder, 1981: 103-6 'strategies of communication' 참고 바람). 즉 언어사용이란 단순히 언어적(linguistic)인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social)이고 심리적(psychological)면이 수반되므로, 학습자의 영어습득은 그가 처한 주위환경과 그의 심리적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자의 경험으로서의 교재편성과 교수방법론에 대한 경험을 들 수 있다. 그런데 **communication** 과정과 그것을 통한 교실수업에서 얻은 경험이 재투입(feedback)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교재편성과 교수방법이 결국 언어학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에서 도출하게 되고, 의사전달과정의 경험가치가 무시되고, 언어과정을 결과(product)위주로 생각하여 결국 정확성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 같다. 단적으로 말하여 유창성에 의거한 언어교육은 경험가치를 반영한 모델이다.

따라서 우리 영어교육이 경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정확성에만 남게 되는 이유는 영어교육의 모델을 문학이나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도출하려는 데에도 있다. 물론 문학과 언어학 이론이 언어교육에 긴밀한 연관이 있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어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언어학 이론 및 문학이 부분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즉 언어교육은 이론(theory)과 실제(practice)의 통합인데 너무나 언어교육을 언어이론에만 입각할 때는 다시 정확성이라는 논리에 빠

지게 된다.

특히 Chomsky를 중심으로한 미국의 순수언어학 이론은 사회적 환경에서의 언어사용(language use)의 측면을 도외시키고 인간의 '정신적 기능'(mental faculty)의 이론으로서 독립된 영역을 차지함으로써 이론적 언어학의 일반화 및 추상화가 언어교육의 이론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기에는 거리가 먼 분야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언어학도 언어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이론설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본래 언어학이란 언어의 임의적인 자료로부터 추상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어교육을 언어학에만 입각하다 보면 언어사용(language use)보다는 언어분석(language analysis)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언어분석의 입장은 언어사용과는 불일치하며 언어에 대한 부분적인 속성만 포착하므로 부적당한 언어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다. Widdowson은 'The partiality and relevance of linguistic descriptions'라는 논문에서 언어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응용언어학은 순수언어학의 패권(hegemony)으로부터 탈피하고 그러한 순수언어학의 입장을 부정함으로써 언어교육의 독자적인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Widdowson(1979: 234-44)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본다.

I think that applied linguistics can only claim to be an autonomous area of inquiry to the extent that it can free itself from the hegemony of linguistics and deny connotations of its name.

It seems to me that actually there is reason to suspect that a description deriving from linguistic theory is not the best suited one for language teaching.

But an approximation is always made possible by leaving some things out of account, and I believe the things left out of account in order to achieve an approximation of this particular sort *are just the most important properties of human language...*

What are the conditions of adequacy attaching to a pedagogical model of linguistic description? One of them, I would venture to suggest, is that it should be in some way congruent with the language user's concept of the nature rather than the analyst's... The analyst only captures a small fragment of his total awareness of what language is about... The analyst's model is not only inadequate but actually incongruent in certain crucial respects with that of the user.



결국 **Widdowson** 이 주장하는 바는 언어교육에서 볼 때 언어학은 부분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언어교육의 관점을 언어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Stern(1983)**도 언어학과 언어교육의 관계를 논하면서 언어학으로 부터 언어교육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Linguistics had been misapplied and its importance had altogether been overrated... The perspective of language teaching is different from that of linguistics... In other words, a shift was taking place from 'applying' linguistics directly to treating linguistics as a resource to be drawn on for the benefit of pedagogy with complete independence of mind. (Stern 1983 ; 173-4)

이상에서 보듯이 언어학에 의거한 언어교육의 모델은 정확성이라는 논리와 맥락을 같이하고 우리의 영어교육이 언어학으로 부터 탈피하여 다른 관점에서 시도하려면 그 일환으로 정확성이란 모델의 독점으로 부터 유창성을 포용하는 모델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 V. 결 론

정확성이란 언어의 부분성과 상통하여 다분히 기술언어학에 근거한 용어이다. 정확성에 의거한 언어교육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런 학습과정을 반영하지 않는 학습자위주의 교과과정(curriculum)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결함이 있는 교과과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교육내용이 세부적으로 분석되어온 언어의 문법이나 문장구조에만 관여하기 보다는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특성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여 주며, 우리의 영어교육이 문법 및 구조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제상황에서의 언어의 기능(function)과 쓰임(use)의 관점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어떤 언어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방법론적인 시야를 지니면서 영어교육에 임하여야 하고, 보다 많은 경험가치를 언어교육과정에 부여하면서 유창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활기있는 영어교육방법론 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방법론은 communication으로 연결되며 유창성으로 전환하는 영어교육으로서 그것은 학습자의 자신감 또는 안정감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정확성에 대해 너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정

확성위주의 교육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기단계부터 문법을 과다사용하고 그로인하여 자연스런 언어 입력(language input)이 저해되고 결국 부분적이고 기형적인 영어습득으로 이르게 되는 정확성의 폐해를 지적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우선 충분한 언어 입력을 취하도록 하여 불완전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고, 그리하여 충분히 언어를 접한 후 어느 정도의 유창성을 기할 수 있는 전반적인 틀이 형성되었을 때 다시 가다듬고 세련시키는 정확성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영어교육의 모델은 학습자의 communication에 대한 필요분석(needs analysis)에 의거 정확성과 유창성이 모두 균형있고 잘 조화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communication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integrated approach)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방법론은 비단 영어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전반적인(universal) 모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국어교육도 이러한 관점에서 교재를 작성하고 지도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방법론을 정립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너무나 언어분석에 의거 문법 및 구조 위주의 정확성에만 치우치지 않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언어교육에 있어서 언어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너무나 정확성에만 매달리지 않는 영어교육의 시야를 지니면서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사 전달을 위한 영어교육을 도모하여야 한다.

### Bibliography

- 이 계순. 1986. 英語教育: 理論과 指導方法, 開文社
- 이 영식. 1986. Communication으로서의 영어교육, 「영어교육」 31. 한국영어교육학회
- Brown, G. & G. Yule. 1983. *Teaching the Spoken Language: An approach based on the analysis of conversational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umfit, C.J. 1984.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The roles of fluency and accu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umfit, C.J. & K. Johnson (eds.). 1979.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 Corder, S.P. 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Dulay, H., M. Burt, & S. Krashen. 1982. *Language Two*.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s, R. 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Harmer, J. 1983.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Longman.
- Jones, L. 1985. *Use of English: Grammar practice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shen, S.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ergamon.
- Morrow, K. 1981. 'Principles of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Johnson, K. & K. Morrow (eds.). 1981. *Communication in the Classroom*. Longman.
- Richards, J. 1985. *The Context of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ers, W.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nd ed.)
- Stern, H.H. 1983. *F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 Widdowson, H.G. 1979. *Exploraton in Applied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4. *Exploration in Applied Linguistics 2*. Oxford University Press.
- Wilkins, D. 1976. *Notional Syllabuses*. Oxford University Press.

## &lt;Abstract&gt;

## The Fallacy of Accuracy as a Basis for English Teaching

Young S. Lee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some problems posed by the current teaching of English which is biased towards an accuracy-based approach, and to suggest a need for shifting a focus of English teaching from accuracy to fluency.

Traditionally English teaching approaches in Korea, neglecting fluency in favor of accuracy, have always had a basis in the accurate construction of English which has resulted in undesirable effects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English for communication. What is needed here, therefore, is to point out the misleading concerns for language teaching based on accuracy and to show how ineffective or inflexible the accuracy model of teaching might be for English teaching for communication. If we insist on the model of accuracy as the basis for English teaching, we are likely to take a number of risks as opposed to actual use of English in communication, such as too much concentration on unconnected parts of language rather than the language as a whole; learners' psychological inhibition against expressing their ideas spontaneously; their over-using the Monitor in learning English; their demotivation to learn or acquire English; and English teaching in disassociation from normal communication.

For some cases of the fallacy of accuracy-based teaching of English, we may take a kind of listening practice which tries to achieve 100 percent correct comprehension by processing every incoming word; word-to-word translation or sentence-by-sentence interpretation without

due attention to the speed in reading classes; correcting all of the mistakes that the learner may make in trying to convey his ideas in speaking classes; and too controlled writing practice only at the sentence level. In order to prevent our teaching of English from falling into the fallacy of accuracy, we have to broaden our teaching methodological perspectives by discarding methodological ease of accuracy as the basis for English curriculum; we have to get some feedback from actual teaching experience which can reinforce the whole process of English teaching for communication; and we have to draw the model of language which should be appropriate to language learning requirements, not derived from theoretical linguistics or literary criticism. Particularly, if we rely solely on language description derived from linguistic theory in finding the model of language for teaching, we capture a partial generalization of language, thus leading to the accuracy model of teaching from the language analyst's viewpoint rather than that of the language user.

Incidentally, although we need to change the English teaching's emphasis from accuracy to fluency, the point which must not be ignored here is that we must ensure a balanced approach where both fluency and accuracy are developed, eventually achieving the effective communicative methodology through classroom teaching of English.